

01 2027학년도 정시

정시는 수시와 다른 시험입니다

세 장과 여섯 장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무엇을 재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정시 **42,919명** · 경쟁률 **5.7:1** · **충원율 42%** — 수시와 나란히 놓고
- ◆ **미리 알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 점수도 분포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 ◆ **내신이 거의 안 보입니다** — 수시에서 졸랐던 학생에게 다른 자
- ◆ 정시는 수시의 대안이 아니라 수시를 짜는 기준인 까닭

01 · 숫자부터

세 장과 여섯 장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수능 성적으로 겨루는 것은 맞는데, 같은 점수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것이 세 장뿐이라 한 장의 무게가 수시보다 큼니다.

먼저 크기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집 인원	원서	경쟁률 중앙	총원율 중앙
수시	67,153명	6장	9~36:1	75%
정시	42,919명	3장	5.7:1	42%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 — 정시 모집이 42,919명으로 작지 않습니다. 수시의 3분의 2쯤 됩니다. 둘 — 경쟁률이 5.7:1로 수시보다 낮습니다. 셋 — 총원율도 42%로 수시(75%)보다 낮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원서가 세 장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세 곳에만 쓰니 지원자 수 자체가 적습니다. 대신 그 세 곳에 지원자가 정확히 몰립니다 — 수능 점수가 공개되어 있어 모두가 비슷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대학 제출) 2026학년도 정시 5,261줄/40개 대학과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저희가 집계.

02 · 무엇이 다른가

미리 알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수시	정시
무엇으로	내신 · 서류 · 논술	수능 점수
몇 장	여섯	셋 — 가·나·다군에 하나씩
내 점수를	쓸 때 모릅니다(논술·면접이 남음)	이미 압니다
남의 점수를	모릅니다	분포를 압니다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훨씬 정확합니다

셋째와 넷째 줄이 정시의 성격을 정합니다. 점수가 나와 있고 분포도 공개되니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는 「잘 보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의 비중이 큼니다.

그런데 모두가 계산합니다

여기가 정시의 어려운 자리입니다.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 남도 계산합니다**. 「여기가 유리해 보인다」는 판단을 수만 명이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마감 직전에 크게 움직입니다**. 낮아 보이던 곳에 마지막 몇 시간에 몰리는 일이 흔합니다. 수시보다 훨씬 심합니다 — 수시는 판단 근거가 흩어져 있지만 정시는 같은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시는 여섯 장이라 한 장이 어긋나도 다섯이 남습니다. 정시는 셋뿐이고, 군이 다르면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장의 무게가 수시의 두 배인 셈입니다.

출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어디가 전형결과 집계. 지원 행태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03 · 무엇을 재나

내신이 거의 안 보입니다

정시가 수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내신을 대개 안 보거나 매우 작게 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좋았던 학생에게 정시가 다른 자가 됩니다. 3년치 기록이 아니라 하루의 점수로 봅니다.

이런 학생은	수시에서	정시에서
내신 낮고 수능 강함	문이 좁습니다	넓어집니다
내신 높고 수능 약함	유리합니다	좁아집니다
둘 다 보통	학종·논술을 봅니다	계산해 보면 자리가 보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느 줄인지를 아는 것이 정시 준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줄이면 수시에 무게를 두어야 하고, 첫째 줄이면 정시를 주력으로 보셔야 합니다.

공개되는 값도 다릅니다

정시 입결에는 백분위 컷과 환산점수 컷이 나옵니다. 수시의 학생부 등급컷과는 전혀 다른 자입니다.

2026학년도 자료에서 평균 백분위 70%컷을 공개한 값을 보면 중앙값이 83 언저리였습니다. 다만 대학·학과에 따라 크게 벌어지므로 이 한 숫자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총원은 수시보다 덜 됩니다

정시 총원을 중앙값이 42%이고, 33%는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수시 교과(122%)와 견주면 크게 낮습니다.

까닭은 원서가 세 장뿐이라 중복 합격이 적기 때문입니다. 정시 예비번호는 수시만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집계. 개별 대학·학과의 컷은 실지 않습니다. 공개 범위가 대학마다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내가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봅니다	고2~고3
2	정시로 갈 수 있는 대략의 선 을 잡습니다	모의고사 뒤
3	수시 여섯 장을 그 선 위로 짍니다	9월 원서 전
4	수능 뒤 선 을 다시 잡습니다	11월
5	가·나·다 군에 하나씩 짍니다	12~1월

3번이 수시와 정시를 잇는 자리입니다. 앞서 다룬 대로 수시에 등록하면 정시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정시 선을 모르면 수시 여섯 장도 제대로 못 짍니다.

정시를 준비하며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내 **내신**과 **수능** 가운데 어느 쪽이 강한가
- ☐ 정시로 갈 수 있는 **대략의 선** 을 잡아 두었는가
- ☐ 수시 여섯 장이 **그 선보다 위** 인가
- ☐ 성적표의 **표준점수·백분위** 를 적어 두었는가
- ☐ 내가 **강한 영역** 이 무엇인지 아는가
- ☐ 목표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 을 보았는가
- ☐ **가·나·다**군 을 나눠 짍는가
- ☐ 정시 총원이 **수시보다 덜 돈다** 는 것을 아는가

둘째와 셋째를 **9월 전에** 하셔야 합니다. 수시 원서를 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가 안 되면 정시」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순서로 생각하면 9월에 수시 여섯 장을 잘못 짍니다 — 정시 선을 모른 채 쓰니까요. 정시는 수시의 대안이 아니라 수시를 짜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여름에 정시 선을 잡아 두시면 수시 원서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정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정시 경쟁률이 낮으니 정시가 쉬운가요?

아닙니다. 경쟁률이 낮은 것은 원서가 세 장뿐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는 한 사람이 여섯 곳에 씁니다. 그래서 지원자 수가 부풀려집니다. 정시는 세 곳뿐이라 **같은 인원이 절반의 원서**를 냅니다. **경쟁률 숫자가 낮아지는 것은 산술의 결과**이지 난이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시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점수가 공개되어 있어 지원자가 정확히 몰립니다.** 수시는 판단 근거가 흩어져 있어 예상 밖의 일이 생기지만, 정시는 **비슷한 점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곳에 씁니다.**

그리고 **총원이 덜 듭니다**(42% · 33%는 아예 안 뛴). **예비번호를 수시만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Q.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만 준비해도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다만 세어 보고 정하십시오.

모집 인원으로 보면 수시 67,153명 대 정시 42,919명입니다. 수시가 더 큼니다. 수시를 아예 안 쓰면 그만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를 쓰는 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학종·교과는 이미 있는 생활기록부로 쓰고, 원서를 쓴다고 정시 준비가 줄지 않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은 **논술과 면접**입니다 — 그건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 「수시를 포기」가 아니라 「논술·면접이 없는 자리로 수시를 몇 장 쓴다」가 대개 더 나은 계산입니다.

다만 정시 선보다 낮은 자리는 쓰지 마십시오. 붙으면 곤란해집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시는 수시의 대안이 아니라 수시를 짜는 기준입니다. 정시 선을 먼저 잡으십시오. 여섯 장이 그 위에 섭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전형결과와 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컷·경쟁률은 실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과 방식은 해마다 바뀌니 지원 연도의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